

# 길림성 첫 국가간 금융봉사 플랫폼 업무 훈춘서

3일, 국가외환관리국 국가간 금융봉사 플랫폼 '은행과 기업간 융자접목 응용 분야'가 정식으로 길림성에서 운행될 가운데 건설은행 훈춘지행이 운행 당일 성공적으로 모 기업에 '은행과 기업간 융자접목'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이는 전 성 범위내에서 처음으로 국가간 금융봉사 플랫폼 '은행

과 기업간 융자접목'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로 되었다.

'은행과 기업간 융자접목 응용 분야'는 국가외환관리국 국가간 금융봉사 플랫폼에서 새로 출시한 응용 분야로서 금융 디지털화로 민영 경제 및 중소기업 무역융자 장벽을 제거하는 데 조력해 국가간 금융봉

사의 능률과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금융봉사로 실물경제의 질적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동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소개에 따르면 국가간 금융봉사 플랫폼 '은행과 기업간 융자접목 응용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융자 경로를 확장하는 중요한 새 조치로서

중소기업의 융자난, 융자 능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 기업 사이 정보 매칭이 안되고 은행에서 기업의 융자 수요와 신용 정보 등 문제를 제때에 료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훈춘융합미디어중심

## 우리 나라 1월—5월 승용차 판매 꾸준히 증가... 전년 대비 5.7% 늘어



지난 4월 28일, '2024 북경국제모터쇼'를 찾은 관람객이 소미 SU7 신에너지차에 탑재해 스마트 장비를 체험하고 있다.

우리 나라 소비 촉진 정책에 힘입어 1월—5월 승용차 소매판매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해당 기간 우리 나라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총 80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늘었다.

그중 5월 판매량은 17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9% 감소했지만 전월보다는 11.4% 증가했다.

CAAM은 보상교환판매(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 북경국제모터쇼, 각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의 요인으로 이같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5월 한달간 신에너지차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5% 늘어난 80만 4,000대를 기록했다.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9만 4,000대로 4% 줄었다.

/ 신화사

## 젊은층 금 소비시장 주축으로 금부상

결혼 준비에 한창인 왕학영(26세)의 필수 쇼핑 목록에는 금장신구가 포함되었다.

그는 "장신구, 보석류의 디자인이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졌으며 특히 통화화장(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구매력 보존에 금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을 사는 것이 습관처럼 돼버렸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나라 청년들은 금을 구식으로 여기고 한때 다이아몬드 등 다른 보석에 눈을 돌렸지만 최근 다시 귀금속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황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금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78% 늘면서 1,090톤에 육박했다.

한편 전체 금 소비자의 16%를 차지

했던 25~34세 청년층이 지난해 59%로 확대되면서 금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떠올랐다. 중국황금협회는 앞으로는 25세 미만의 소비자들이 금 소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양시취화금은주얼리회사 직영부 총괄매니저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25~35세 사이의 젊은층으로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 동안 금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재테크의 한 형태로 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 또한 많은 청년층이 요즘 금을 주택이나 주식 대신 투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긴다는 견해에 동의할 표하기도 했다.

상해금거래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AU99.99의 금가격이 지난 5월 20

일 오후 그램당 578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갱신했다. 금가격 변동에 따라 한변에 1,000~2,000원 상당의 금을 정기적으로 구매한다. 전문가들은 또 젊은층에 인기 있는 금공(공모양 금제품)을 언급하며 "어려서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던 것과 같이 지금은 예금처럼 금공을 모으는 젊은층이 늘어나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특히 금공은 가공 비용이 저렴해주얼리로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진주, 다이아몬드 등이 세팅된 유명 브랜드주얼리를 선호했던 북경 시민 강설(29세)은 지난해 몇년 사이에 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했다. 수리를 위해 금목걸이를 소핑함에 가져간 그는 "그램당 500원을 주고 샀던 목걸이의 재판매 가격이 그

램당 540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금 열풍'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는 '금주얼리와 제품의 달라진 디자인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공상은행은 해리포터를 테마로 금 제품 디자인을 출시해 팬들의 관심을 샀고 유명주얼리기업 주대복은 디즈니와 헬로키티 등 만화캐릭터 이미지를 제품에 적용했다. 그 밖에 '행운의 비즈' 팔찌도 사회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연령대인 젊은층에 홍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즘 소셜미디어(SNS)가 젊은층에게 새로운 검색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금의 대중화 상품 이미지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신화사

## 5세대 통신기술 상업화 5년, 35개 도시 5G-A 신시대로 매진

2019년 6월, 5세대 통신기술이 우리 나라에서 상업화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5년 동안 5세대 통신기술의 응용 범위가 국민경제의 74가지 분야로 확장하면서 신형의 공업화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으로 부상했다.

사전성 미산시 영풍총은 5세대 사물인터넷 기술로 디지털 영풍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계화에서 디지털화로 매진했다. 차이나텔레콤 미산지사 농업농촌부 왕해용 총경리

에 따르면 영풍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토양, 습도, 병충해, 기후 등 상황을 실시간 관측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대중의 생활을 크게 개선시킨 5세대 통신기술은 현재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을 다그치고 있다. 우리 나라 첫 심해유전 5G 기지국이 최근 주강구 분지에서 사용에 투입되었다. 중국해양석유그룹 심수분사 과학기술정보화부 량위 경리는 5G 신호의 보급을 통해 해상 플랫폼의 이동성, 고효율 전송,

실시성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 나라가 보유한 5G 기지국은 374만 8,000개에 달해 5G 신호가 현금 보금에서 촌급 보금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5G 기지국중 90% 이상은 5G-A로 업그레이드되어 에너지 소비량이 초기보다 20% 하락했으며 5G-A의 전용망은 3만개 이상에 달한다. 중국통신표준화협회 리사장문고는 5G 국제표준은 5G-A 단계로 진입했다며 5세대 통신기술로 불리는 5G-A는 6세대 통신기술로 발전

하는 관건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중국공정원 원사 오하전은 5G-A를 통해 일부 6세대 관건기술을 검증하고 6G 표준 제정과 기술의 응용을 위해 경험을 쌓을 것이라며 2030년에 6세대 통신기술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세대 통신기술과 비교해 6세대 통신기술은 대비 실효성이 좋고 정확도가 높으며 인공지능에 힘입어 각종 처리 효율을 크게 격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인민방송

## 연변,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상무국은 주내 여러 식품기업을 조직해 한국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전시회')에 참가했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전시회는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국제전시협회(UFI)로부터 인정받은 식품박람회로서 한국 식품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행사이다.

주상무국은 연변창화미곡유한회사, 연변진향식품유한회사, 복무대로라면 등 주내 9개 기업을 이끌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16명의 기업 대표는 명태 관련 제품, 목이버섯, 누룽지, 전병, 월병뿐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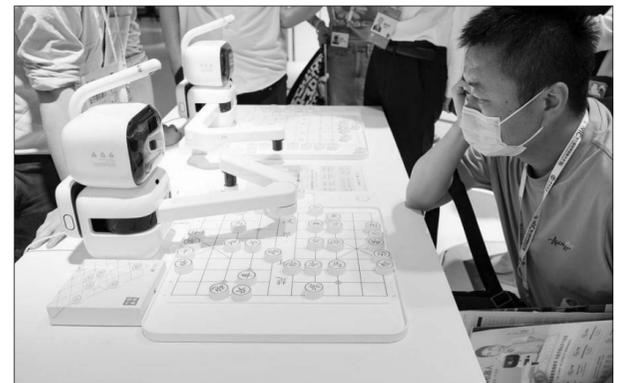
라 랭면, 비빔밥, 잡채 등 밀키트 상품을 선보였다.

전시회 기간 연변에서 전시한 명태, 밀키트 제품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고 기업 대표들은 기회를 잡고 협력 의사를 표한 기업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교류 접촉했다. 행사 첫날부터 여러 기업에서 거래 의향을 내비쳤는데 전시회 첫날에만 거래액이 55만달러에 달했다.

주상무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연변의 좋은 물건'을 국제무대에 선보이고 연변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 연변일보

## 천진, 20일 '2024 세계스마트산업박람회' 개최



지난해 5월 18일, '제 7회 세계스마트대회(WIC)' 스마트과학기술전에서 한 관람객이 인공지능(AI) 장기 로봇과 대결을 펼치고 있다.

중국과 전세계의 인공지능(AI) 관련 자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4 세계스마트산업박람회'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천진에서 열린다.

천진과 중경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앞선 천진의 '세계스마트대회(WIC)'와 중경의 '중국국제스마트산업박람회'를 통합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기술 분야의 학술 혁신, 전시회, 경연대회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10만립방미터의 전시 면적에는 AI, 스마트커넥티드카(ICV), 스마트 제조, 로봇 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10개의 테마 전시구역이 마련된다. 여러 국제 단체와 기관이 경쟁하는 로봇 공학 및 스마트 주행 챌린지도 계획되어있다.

'세계스마트산업박람회'는 향후 두 지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될 예정이다.

/ 신화사

## 촌+기업 심층 융합으로 흥변부민 실현

최근년간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은 생태 우세에 의거하여 중약재산업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와 처부를 이끌어내고 아울러 '촌과 기업 공동건설+농민 참여+산업승격'의 새로운 발전 모식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유기농업을 선두로 하는 변경마을을 구축하고 있다.

량수진 남쪽에 위치한 량수촌은 산업을 통한 마을 진흥을 다그치고 흥변부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약재 재배 규모를 일층 확대하고 축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촌 체험 관광을 점진적으로 모색하고 입쌀 판매 경로를 확장한다.'는 발전 사로를 제기했다. 성급 농업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인 길림성두만강제약유한회사에 의탁하여 당건설을 선도로 한 융합 발전 모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당지부를 핵심으로 하고 기업을 선두로 하며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집체경제를 바탕으로 하며 농가를 주체로 하고 사회력량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적극 모색했다.

제 1 산업을 부양해 농가와의 연합으로 처부를 이끌고 제 2 산업을 기동으로 번갈아 진행을 실현하며 제 3 산업으로 확장해 문화로 관광을 촉진시켰다. 두만강제약은 길림성 변경선에서 투자 규모, 세가지 산업 융합, 농가와의 연합을 통한 처부 융합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민족특색 식품약품 가공 기업으로서 중약재 가공, 인삼 및 정제 홍삼 제품과 중약을 심층가공할 수 있다. 기업은 무공해 보건제품 생산을 골자로 하면서 농업, 관광업을 발전시켜 산업사슬을 확장, 성장시킴으로써 변경지역 세가지 산업의 융합 발전 및 촌과 기업의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 해왔다.

현재 량수촌에서는 당구 27헥타르를 재배하고 있는데 단위당 리온이 옥수수를 재배할 때의 헥타르 당 3,000원에서 현재 헥타르당 2만 1,000원으로 증가했고 촌집체수입은 루게로 174.6만원 늘어났다.

이 밖에도 량수촌에 있는 '두만강제약문화박물관'은 길림성 '3A급 향촌관광경영단위'로 평의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조선족민속생활관', '서화관', '두만강기석관', '민속민가관 광원' 등 관광점이 포함되어있다. '조선족생활관', '서화관', '기석관'에는 각종 전시품 3만점이 마련되어 있고 '관광관'내에는 10개가 가까운 민속문화경관이 있어 관광, 건강양생, 민속문화를 아우르는 정품관광 종목으로 되고 있다.

/ 인민넷



## 유가 하향 조정! 92호 휘발유 '7원 시대'로 복귀

6월 13일 24시에 국내 가공유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해남성과 서남부 일부 고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92호 휘발유는 다시 '7원 시대'로 복귀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모니터링센터의 현재 가공유 가격 형상 메커니즘에 따르면 2024년 6월 13일 24시부터 국내 휘발유 및 디젤

유 가격(표준품, 이하 동일)은 톤당 각각 190원 및 180원 인하되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92호 휘발유는 리터당 0.15원, 95호 휘발유는 리터당 0.16원 하향 조정되었다. 연료탱크 용량이 50L인 일반 가정용 자동차의 경우 92호 휘발유 한타크를 가득 채우면 7.5원이 적게 든다.

/ 인민넷